

안철수 '安風' 키우기 문재인 '대세' 굳히기

Ⓜ '선택 2017' 대선 D-36

안, 국민의당 서울경선 86.5%
 문, 민주당 영남경선서 64.7%

5·9 '잠미 대선'을 향한 본선 대진표가 이번주 확정된다. <관련기사 3·4면>
 더불어민주당은 3일 수도권·강원·제주 경선을 끝으로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하고, 국민의당은 4일 대전·충남·충북·세종 경선을 마지막으로 후보를 확정함에 따라 이번주부터 사실상 본선 레이스가 시작된다.
 민주당 경선에서는 대세론을 앞세운 문재인 후보가, 국민의당 경선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지역별 순회경선에서 안풍을 일으키며 연승을 이어가는 등 본선 진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일 열린 서울 경선에서 유효투표 3만5421표 가운데 3만633표(86.48%)를 얻으며 압승을 거두면서 과반의 6연승을 이어갔다. 총 누계 득표율도 71.95%(12만4974표)로 끌어올리면서 사실상 승부를 결정 지었다.
 손학규 후보는 3760표(10.62%)로 누계 득표율 19.80%(3만4399표)를 기록, 안 후보에게 완패하면서 사실상 추격의 동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이다. 박준선 후보는 총 1028표(2.90%)에 그치며 누계 득표율이 2.90%(1만4324표)에 그쳤다. 안 후보는 ▲광주·전남·제주 ▲전북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경기 ▲서울·인천 등 이날까지 6연승의 압도적 1위를 달

리고 있다. 따라서 마지막 남은 대전·충남·충북·세종 경선에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안 후보의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수도권·강원·제주 경선을 마지막으로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앞서 잇따라 열린 호남과 충청, 영남권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3연승을 이어가며 누계 득표율 59.0%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22.6%, 이재명 성남 시장은 18.2%로 뒤를 쫓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역부족 상황이다.
 마지막 수도권·강원·제주 경선을 앞두고 있지만, 이변이 없는 한 문 전 대표가 결선투표 없이 본선행 티켓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3일 마지막 경선에서 안 지사와 이 시장이 문 전 대표의 누계 득표율을 50% 밑으로 끌어내리면 오는 8월 1, 2주 주간 결선투표가 이뤄진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31일 전당 대회에서 홍준표 경남지사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으며, 바른정당은 이보다 사흘 앞선 같은 달 28일 원내교섭단체 가운데서는 가장 먼저 유승민 후보를 대표주자로 뽑았다. 정의당은 일찌감치 심상정 대표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다.
 이처럼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치열한 경선을 뚫고 이번주 중 본선 대진표가 확정되면 대선 레이스도 본격적으로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홍준표 선출

홍준표 경남도지사(사진)가 자유한국당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됐다.
 홍 후보는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이인제·김관용·김진태 홍준표(기호순) 경선후보 간 경쟁에서 54.2%를 얻어 대선후보로 확정됐다.
 한국당은 지난달 26일 책임당원들이 참여하는 선거인단 전국 동시투표(50%)와 29~30일 국민여론조사(50%)를 합산한 결과, 홍 지사(선거인단 61.6%, 여론조사 46.7%)가 최종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진태 후보는 19.30%(선거인단 21.1%, 여론조사 17.5%)로 2위를 차지했

고 ▲이인제 후보는 14.85%(선거인단 5.1%, 여론조사 24.6%)
 ▲김관용 후보는 11.70%(선거인단 12.2%, 여론조사 11.2%) 각각 얻었다.
 홍 후보는 대통령후보 수락연설에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파면되고 구속된 날로 국민도 박근혜 대통령을 용서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너진 담벼락을 보고 한탄할 때가 아니라 5월9일 신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눈앞에 세월호가... 2일 오후 세월호가 실린 반잠수식 선박이 목포 신항만 철재부두 앞바다에 정박해 있다.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는 철재부두에는 추모객들과 세월호 유가족들이 매단 수만 개의 노란 리본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목포 신항=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수인번호 503' 박근혜 독방 수감 구체제 몰락...새 대한민국 첫걸음

차 구속 나흘째... 검찰, 내일 서울구치소 방문조사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추문에 휩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된 데 이어 지난 31일 새벽 검찰에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어 검찰에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역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특히 이번 박 전 대통령의 파면에 이은 구속을 놓고 일각에서는 56년간 대한민국의 역사와 영욕을 함께 해온 박정희 시대의 구체제 종식과 올바른 대한민국, 새로운 나라 건설의 첫걸음을 떼는 시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영어의 몸이 된 박 전 대통령은 2일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돼 수인번호 503번을 받고 3일 현재 나흘째 생활하고 있다. 앞서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달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한 폰도 개인적으로 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해온 박 전 대통령의 영장을 발부한 것은 그와 최씨 사이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 포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비밀누설 죄목에 걸쳐 13개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구속된 역대 전직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다.
 헌정사상 처음인 박 전 대통령의 파면과 구속수감은 우리 헌정사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한층 더 단단한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힘 있는 소수가 아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법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는 원칙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등은 성명을 통해 이번 기회를 계기로 우리사회의 뿌

리깊은 정경유착과 비선농단 등의 남은 적폐 청산, 원칙과 법치가 바로 선 새로운 국가건설의 시금을 삼아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의회의 성명서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은 권력과 위정자를 향한 엄중한 경고이자 후대들을 위한 소중한 교훈이다"면서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데 매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후 처음으로 조사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나 삼성 외 대기업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구속수감된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최장 10일)을 허가하는 경우 기소 전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이달 19일이다.
 4월 17일부터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검찰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나 정치적 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중순께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세월호 바닥에 21개 구멍 뚫는다 육상거처 위해...조사위, 허용

세월호의 빠른 육상 거처를 위해 세월호 바닥에 21개의 천공을 뚫기로 했다. 세월호 내부에 가득찬 바닷물을 빼내야 무게가 줄고 그래야 육상 거처도 가능하다는 결론인 것이다. 세월호의 육상 거처는 6일째 진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2·6면>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는 2일 세월호 육상 거처 작업을 위해 21개의 천공을 뚫는 방안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내부에 가득 찬 바닷물·필 등을 걷어내 육상으로 실어 나를 모듈 트랜스포터가 감당할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다.
 세월호는 선체 무게와 화물, 해수, 필 등을 모두 합쳐 1만4662t에 달한다. 반잠수식 선박에서 자연 배수 방식으로 해수 약 1200t이 배출돼 현재 세월호의 총 무게는 약 1만3460t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모듈 트랜스포터'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는 1만3000t이다. 아직도 460t이 초과된 상태다.
 목표신항으로 옮겨진 세월호에서는 인양 후 처음으로 유류품이 발견됐다.
 유류품은 이준석 선장의 여권과 신용카드,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손가락과 불펜 등이었다. 인근에서는 5~6cm의 유골 9점이 발견됐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확인 결과 모두 동물 뼈로 판명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습관적인 당신의 불법소각
소중한 산림을
불태울 수 있습니다!**

3월말이후 허가없이 산림과 가까운 논·밭두렁 소각행위는 불법이며, 큰 산불로 번져 끔찍한 재앙을 부를 수 있습니다.
 소각을 할 때 생기는 불씨들,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먼 곳까지 날아가 큰 산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불법 소각행위, 이제부터는 불법행위!

**광주광역시
GWANGJU CITY**